

기도의 동역자님께

저는 농부가 아닙니다.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긴 했지만,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집 밖에 나가는 일이 거의 없게 된 지난 1년 동안 집 옥상에 1평 남짓의 나무 상자 속에 흙을 사다



넣고 여러 가지 채소를 심어보았습니다. 열무, 토마토, 가지, 고추, 상추, 파프리카까지 키우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올라가 그들을 흐뭇하게 바라보곤 합니다. 씨를 뿌려 놓고, 혹은 어린 싹을 얻어다 심어 놓고 그것이 자라나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를 얼마나 고대했는 지 모릅니다. 마침내 고추와 가지, 토마토가 열매를 내기 시작하자 저는 탄성을 지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땅이 깊지 않아 잎이 마르고, 벌레가 먹어 잎이 성하지 않는 일도 적잖이 생겨났습니다. 어떤 때는 해가 너무 뜨거워 애가 탔고, 어떤 때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속이 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말 못하는 그들을 매만지며 저 역시 말없이 그들을 격려하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 채소들이 자라나고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저의 선교 사역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뼈저리게 체득하고 있습니다.

채소가 자라 잎이 무성하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코로나가 터지면서부터 시작한 청년 성경 공부 사역도 점점 풍성해져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신약 성경을 다 마치고, 지난 3월초부터 지금까지는 계속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가 한국보다 훨씬 오래 되었지만,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대체로 복음의 핵심에 대하여 너무 모르거나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복음의 핵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도네시아 젊은이들에게 심어주면서 그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게 되어 기쁘고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사역이 축소될 수도 있겠지만 저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히려 더 확장되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얼마 전에 줌 미팅으로 한국어 기초반 수업을 진행하면서 제가 있는 반동 지역 이외에서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이 누구인가 물어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 선교는 어떤 상황에서도 여전히 일하시는 주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비행기로 3 시간, 혹은 2 시간 가량 떨어진 곳인 수마트라 북쪽 끝 아체, 술라웨시 남쪽 끝 마카사르, 그리고 깔리만탄 동쪽 끝 사마린다에서까지 수업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선교가 가능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이 친구들을 진실한 마음으로 잘 섬겨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쉬지 않고 여전히 일하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도르카스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초등학교 3 학년인 도르카스(도르가)는 새롭게 연결된 1 대 1 결연 아동입니다. 도르카스의 아버지는 기독교인입니다. 하지만, 코로나와 함께 당뇨병이 심해져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단칸방에 네 식구가 살고 있었고, 엄마가 동네에서 튀김을 만들어 내다 팔면서 겨우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이 가정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이 가정을 주께서 긍휼히 여기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장차 선생님이 되는 것이 꿈인 도르카스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건강하게 잘 자라서 받은 사랑대로 많은 다른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중보해 주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도르가처럼요.

*** 성탄절을 맞아 1 대 1 결연 아동들(14 명)에게 선물을 보내주고 싶으신 분들은 연락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1. 코로나 19 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쉬지 않고 일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면서 맡겨 주신 영혼들을 지속적으로 섬기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도록.
2. 한국어와 영어를 배운 학생들이 섬김을 받은대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일에 쓰임을 받도록, 그래서 도움을 받은 그들이 결국에는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3. 도르카스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 자라 성경에 나오는 도르가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4. 이숙영선교사의 골다공증과 갑상선기능저하증, 그리고 비문증, 섬광증이 치료를 받고, 허리 디스크로 인한 허벅지 통증을 잘 이겨내고 건강하게 사역에 임할 수 있도록.
5. 대학교 4 학년과 3 학년에 재학 중인 성은이와 성진이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대학 졸업 후를 잘 준비하며 건강하도록.

2021 년 11 월 중순, 인도네시아 반둥에서
박상준 이숙영 (성은, 성진) 선교사 올림

- 연락처: +62-813-9488-8002, 070-8246-3990 카톡 ID: kalebpark / parksangjun222@gmail.com
- 후원은행 및 계좌 번호: 하나은행 990-090819-187 (문의 02-443-0883, 한국지피선교회 재경간사)